



'2011 치킨 페스티벌' 둘러보기

'2011 치킨 페스티벌' 성황리 폐막

치킨 뮤지엄, 닭요리 세계여행 등 볼거리 풍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2011 치킨 페스티벌' 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다양하게 맛보고 즐기는 우리 닭고기!' 라는 주제로 본회가 주최하고, 농림수산물부와 한국마사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후원한 '2011 치킨 페스티벌' 은 국내 계육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향을 선도하는 국내 최초의 계육 전문 전시회로 25개사 87부스가 참여했으며, 2만1천200여명의 참관객을 유치했다.

다양한 볼거리 풍부

먼저 B1홀을 들어서자마자 사람 키 만한 닭조형물이 참관객을 맞아주었다. 입구에 마련한 '치킨 뮤지엄' 은 세계 다양한 닭과 관련한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코너로서 (주)마니커에서 운영하는 '닭문화관' 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중 일부를 전시장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치킨 뮤지엄에서는 다양한 닭조형물과 공예품, 그림, 엽서 등이 전시되었으며, 직접 닭모양의 부적을 찍어갈 수 있도록 해 참관객들로 하여금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치킨 페스티벌 현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닭요리 세계여행'.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23개국의 그 나라 특유의 닭고기 요리 24종이 선보였다. 행사 첫날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들이 각자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전시회에 참여해 닭요리를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

히 전시된 요리중 하루에 3번씩 333인분 시식 코너를 마련, 세계 닭고기를 직접 맛볼 수 있어 참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세계의 닭요리가 있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대표 닭요리를 빼놓을 수 없는 법. '팔도 대표 닭요리' 코너를 통해 초계탕, 닭고기 비빔밥 등 각 지역별 대표 닭요리가 전시되었다.

이 두 코너의 경우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인데, 이번 치킨 페스티벌 현장에서 세계 및 우리나라 대표 닭요리들을 볼 수 있어서 참관객들의 기념촬영 장소로도 인기 만점이었다.

그리고 닭과 관련된 문제를 풀면 선물을 주는 '도전! 골든 닭'. 부대행사장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저마다 구호를 외치는 소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학생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 진행됐던 '도전! 골든 닭'은 닭고기의 영양 및 특징 등을 퀴즈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내용의 이해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나도 셰프!' 이벤트는 현장에서 직접 참관객들이 전문 요리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치킨스프링롤', '치킨브리토' 등 다양한 세계의 닭요리를 직접 요리하고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닭고기 시식회와 이벤트, 역시 인산인해

치킨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무료시식회와 이벤트! 각 부스마다 시식회와 이벤트가 열릴 시간이 되면 20~30분 전에 줄서기가 시작됐다.

이번 행사에는 (주)하림, (주)마니커, (주)동우, (주)올품, 한강씨엠(주), (주)화인코리아 등

6개의 본회 회원사가 참여해 자사 브랜드 및 다양한 닭고기 제품 전시를 통해 참관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매일 4~5회씩 무료 시식회와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이번 행사에 처음 참가한 또래오래와 거성치킨, 헬로우치킨, 꼬꼬댁닭강정, 장인에프앤씨 등 치킨 프랜차이즈가 참여해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고 시식회와 함께 창업상담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사)한국토종닭협회와 한국토종닭소비진흥협회, 버드내, 칠갑산토종닭, 엘림농장은 토종닭존을 만들어 우리 토종닭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토종닭 제품과 요리 등을 참관객들에게 선보였다.

본회는 홍보관을 배치해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국내산 닭고기에만 붙는 안심마크인 '품질보증마크'를 소개하는 등 닭고기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

창업세미나, 알찬 정보 제공해

올해 처음 진행됐던 '2011 치킨 창업 세미나'는 소자본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하기, 소서커머스를 접목한 치킨점 온라인 홍보하기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가 열린 2층 컨퍼런스룸(북)은 본 행사장(1층 B홀)과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어 많은 인원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

2011 치킨 페스티벌 이모저모

개막식 이모저모



01. 본회 서성배 전 회장의 개회사로 2011 치킨 페스티벌이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02. 계육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 2011 치킨 페스티벌을 빛내주셨다. 좌로부터 한강씨엠 박길연 대표, 동우 정창영 대표, 축산경제신문 김기운 회장, 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석희진 원장, 농림수산식품부 노수현 과장, 본회 서성배 전 회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최형규 원장, 농협중앙회 이완원 상무, 축산신문 윤봉중 회장, 농수축산신문 전정희 대표, 하림 이문용 사장, 울름 변부홍 대표
03. 본회 최상영 전무가 2011 치킨 페스티벌 관련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04. 내빈들이 전시장을 관람하며 닭요리를 시식하고 있다.
05. 내빈들이 '닭요리 세계여행' 행사장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전 이벤트 이모저모



06. 사전 이벤트로 진행된 '구구절절 닭이야기'. 직장, 학교 등에서 있었던 '닭'과 관련된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 총 10건을 선정해 치킨을 배달해주었다. 지난 4월 6일 속초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치킨이 배달되었다.
07. 지난 4월 14일 '구구절절 닭이야기' 이외 사전 이벤트로 진행된 '닭사랑 UCC 공모전'을 비롯 닭요리를 가족, 친구, 연인, 동료들과 함께 맛있게 먹고 즐기는 모습을 담은 '치킨과 함께하는 행복한 식탁', 자신이 개발한 부위별 닭요리 레시피를 홍보하는 '팔색닭 콘테스트'의 당첨자들의 시상식이 있었다.
08. 닭요리 레시피 콘테스트 '팔색닭 콘테스트', 지난해 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닭고기 요리 레시피가 응모돼 심사하기 애를 먹었다. 총 35명이 참여해 금상 1명에게는 상금 70만원, 은상 1명에게는 상금 30만원, 입상 3명에게는 상금 10만원이 상장과 함께 수여됐다. 금상 : 토마토치킨쌈/ 은상 : 피토케미컬 계육, 닭가슴살 다시마 초장무침, 약선 갈릭 치킨볶음/ 입상 : 닭가슴살 바삭 현미샐러드 with 들깨 두부드레싱, 닭봉감자말이 튀김 with 월넛갈릭소이스스, 목배기에 빠진 치즈 닭날개 매콤 볶음 with 볶음밥, 유자소스&치킨 새싹 샐러드, 묵은지를 먹은 닭안심 크림소스 스테이크

부대행사 및 현장이벤트 이 모 저 모



09. 전시장 내 특별 전시회인 '치킨 뮤지엄'. 서울 닭문화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닭과 관련된 민속품, 그림, 공예품, 닭조형물 등이 전시되었다. 관람객들이 닭 부적을 직접 찍어 볼 수 있도록 했다.
10. 닭요리 세계여행. 23개국 24종의 세계 닭요리가 전시됐다. 14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을 초청, 시식행사를 가졌다.
11.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하루 한번씩 전문 요리강사를 초청해 동남아시아 닭 볶음밥, 치킨 카나페, 치킨 랍 등 요리강좌와 시식회를 가졌다.
12. 유명자의 '팔도 대표 닭요리', 우리나라 팔도 대표 닭요리가 전시됐다.
13. '나도 셰프'. 3일간 매일 2회씩 온 가족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세계의 닭요리를 직접 만들어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14. '닭띠는 다모여라'. 매일 닭띠 관람객 선착순 333명에게 닭 캐릭터 상품을 증정했다.
15. '도전! 골든 닭'. 현장에서 우리 닭에 관한 퀴즈를 내어 정답자에게 닭문화관 입장권, 닭고기 가공품, 닭다리 스낵 등을 증정했다.
16. '2011 치킨 창업 세미나'.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관람객이 참여해 소자본 치킨점 창업, 소셜커머스를 접목한 치킨점 온라인 홍보 등을 주제로 열렸다.

